

# 목포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가을 여행객 맞이 준비

### 코로나19 불구 한국관광공사 선정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 시화골목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조성...관광객 쉼터 역할 병행

목포시가 주요 관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가을 여행객 맞이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목포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코로나 안심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화골목, 근대역사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각 지점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맛집, 특산품 판매처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서산동 시화골목은 영화 '1987' 촬영 이후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졌다. 골목 구석구석에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가 시와 그림으로 펼쳐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시는 시화골목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난 9월 7일 골목 초입에 문화관광해설사 상시대기 장소 및 관광객 쉼터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얻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편안히 목포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쉼터)을 조성하게 됐다"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생활하수 배출요령 적극 홍보나서

### 생활하수 배출요령 담은 홍보물 제작해 해당 지역 배부



영암군은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을 위한 군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현재 36개소의 마을하수처리 시설과 56개소의 중계펌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런 하수처리시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하천 수질보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하수가 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물질과 함께 배출되어 기계설비 고장의 주범이 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에게 생활하수의 올바른 배출과 기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생활하수 배출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는 등 군민 홍보에 나섰다.

홍보물에는 변기에 물티슈, 여성용품, 마스크, 핸드타올 등의 투입을 금지하고 오수받이에는 쓰레기와 이물질 버리지 말 것과 병충해 방지와 악취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 했다

영암군에서는 "생활하수가 올바르게 배출되어 하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캠페인 실시

### '자기혈관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건강생활습관 실천



무안군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자기혈관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슬로건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의 중요성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 기초검사와 상담 등 체험형

홍보관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무안읍과 일로읍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피켓, 배너 및 리플릿을 제공해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신의 혈관 숫자를 알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꾸준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1004섬 신안, 국제보호조류 큰부리도요 도래

### 이동중인 도요물떼새 약 1만개체 신안 갯벌에서 중간 휴식



신안군은 국제보호종이자 국내에서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큰부리도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큰부리도요는 오브강유역, 바이칼호,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월동한다. 전세계 생존

집단이 23,000개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으로 분류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며 서식지 훼손,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경기도 시흥에서 1개체가 처음으로 관찰된 이후 봄, 가을철 이동시기에 희귀

하게 관찰되는 나그네새이다.

신안군은 다양한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매년 봄, 가을 정기적으로 갯벌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서식지 등으로 지정된 관내 주요 갯벌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과 개체수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일 지도읍 갯벌에서 큰부리도요 1개체를 확인하였다. 큰부리도요는 전국에서도 일년에 한 두차례만 관찰되는 매우 희귀한 종이며, 특히 이번 기록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이다.

신안 갯벌은 봄, 가을철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동하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군의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함평군의의회(의장 김형모)는 9월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가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개최 전 모든 의원석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해 회기 중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인원도 제한한다.

김형모 함평군의의회의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가 연이어 발



생한 만큼 추경 예산안 등 주민불편 해소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집행부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 독서가족신문 만들기 공모 개최

### '독서의 달'맞이 ...창의력·자기주도학습력 향상

영암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단절됐던 독서문화 활동을 회복하고자 삼호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가족

신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하는 이번 공모는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영암군에 거주하는 초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나누어 15명(최우수 1명, 우수 4명, 장려 10명)씩 총 30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도서관 내부에 전시한다.

영암=조대호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